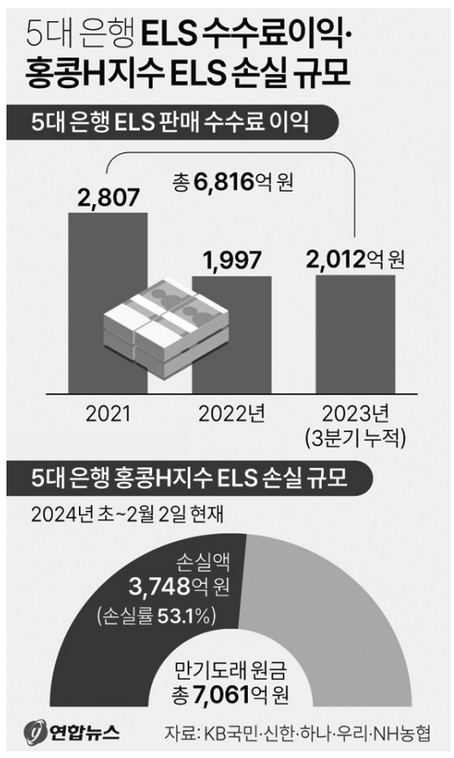
5대 은행 ELS로 7000억원 벌 동안 고객은 원금 '반토막'



3년간 ELS 판매로 0.7~1.0% 수수료…비이자이익의 5.7% 차지
고객 손실 최고 58.2%…은행권 지난해 11월부터 ELS 판매 중단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 3년 사이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을 대거 팔아 약 7000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위험 관리 차원에서 최근 은행권이 일제히 ELS 판매 중단을 선언했지만, 영구적으로 창구 ELS 영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은행 비(非)이자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LS 관련 수익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ELS 판매 수수료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6815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H지수가 1만2000을 넘어 최고점을 찍은 2021년 관련 ELS의 판매 호조로 2806억9000만원의 이익을 냈고, 2022년과 작년(3분기까지 누적)에도 각 1996억9000만원, 2011억9000만원을 남겼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의 흐름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은행들은 주로 증권사가 설계·발행한 ELS를 가져와 신탁(주가연계신탁·ELT)이나 펀드(주가연계펀드·ELF) 형태로 팔아왔다.

은행 몫의 수수료는 ELT의 경우 보통 판매액의 1%, ELF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판매액의 각 0.9%, 0.7% 수준이다. 은행은 3년간 주로 ELT 판매에 몰두해왔다.

하지만 수 천억원에 이르는 은행의 ELS 수수료 이익과는 대조적으로, 상당수 ELS 가입자는 투자 수익은커녕 오히려 원금 회수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대표적 사례가 올해 상반기 만기가 집중된 H지수 ELS로, 2일 현재 H지수(5219)는 2021년 당시 고점(약 1만2000)의 절반을 밑돌면서 대규모 손실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것은 모두 7061억원어치다.

하지만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3313억원뿐으로, 평균 손실률이 53.1%(3748억원/7061억원)에 이른다.

H지수가 5000 아래로 떨어진 지난달 하순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의 손실률(-58.2%)은 거의 60% 수준이다.

더구나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H지수 ELS의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H지수 ELS의 손실이 임박하자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해 11월 관련 ELS 판매를 중단했고, 지난주에는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기초자산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ELS를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이미 작년 10월 초부터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ELS를 팔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ELS 판매 전면 중단'은 무엇보다 최근 ELS의 주요 기초자산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닛케이225 등의 주가지수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선제적 위험 관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ELS 중단 검토' 발언도 영향을 미쳤다.

당국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이미 은행권은 지난해 말부터 ELS를 은행 창구에서 대중적으로 판매하는 관행이 지속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의 ELS 잠정 중단 상태가 이어져 앞으로 은행에서 ELS가 완전히 사라질지 아직 단언할 수 없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은행 입장에서 ELS의 매력적 수익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A 은행의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비이자이익에서 ELS 수수료 이익은 5.7%를 차지했다.

비이자이익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외환 수수료보다는 작지만 '퇴직연금 자산관리' 수수료와 거의 같은 이익 규모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모든 은행이 '이자 장사'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이자이익 확대를 꾀하는데, ELS 수수료 이익을 모두 포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중학생 대상 '多채로운 多문화캠프'

JB금융그룹, 문화체험 기회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호남지역 다문화가정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다다캠프(多채로운 多문화캠프)'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프는 JB금융그룹의 핵심 사회공헌사업으로, 겨울방학 기간 지역 내 다문화가정 중학생들에게 금융 교육과 체육활동, 진로탐색, 다문화 강연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 여름 캠프에 이어 올해 겨울 캠프에도 JB금융 임직원으로 구성된 '씨앗봉사단' 등 관계자 20여명이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했다. 특히 가수 강남을 강사로 초청한 다문화 강연은 자유로운 분위기와 재미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겨울 방학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 '다다캠프'에 참여하게 됐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중 성격유형 검사, 노르딕 워킹 활동을 통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호남지역은 타지역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아 다문화 학생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부방 개선 및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지원, 자립준비 청년 지원 등 지역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지역 브랜드 매출 돕는다

보해양조 '매취순' 선물세트 판매

광주신세계는 5일 보해양조의 대표 과실주인 '매취순' 선물세트 5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매취순은 매실 원액을 최소 5년 이상 숙성해 만드는 것이 특징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매실 농원인 해남 보해매실농원에서 생산한 최상급 매실로만 제조된다.

보해 매취순 선물세트의 대표 제품으로는 순도 99% 이상의 순금 가루가 더해진 '순금 매취순(2개입·700㎖·3만5000원)과 매취순 12년(3ℓ·4만8000원) 등이 있다.

또 매취순 제품 중 최고 프리미엄 제품인 15년 숙성한 매취순 전용잔 패키지(3개입·375㎖·2만3000원)은 구매 시 전용잔을 증정한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지역 브랜드들의 판로를 넓히는 창구 역할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올해 명절에는 광주신세계에서 선보이는 지역 브랜드의 선물세트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지역 내 브랜드들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

세얼굴

"경제 취약계층 재기 돕고 지역 민생 챙길 것"

차상휘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차상휘〈54·사진〉 전 캠코 홍보실장이 취임했다.

지난 1일 취임한 차상휘 신임 지역본부장은 전남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건국대 부동산경영관리 석사, 전북대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6년 캠코에 입사한 차 신임 본부장은 전북지역본부 부장, 동산담보회수지원추진단장, 홍보실장 등을 요직을 두루 거쳤다.

부동산 관리·개발업무와 서민·기업지원 등 금융업무 등 다방면에 경험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상휘 본부장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 등 경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지역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캠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91.31 (-24.00)
↓	코스닥	807.99 (-6.78)
↑	금리 (국고채 3년)	3.312 (+0.064)
↑	환율 (USD)	1330.80 (+8.20)

정부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인상 계획 전혀 없다"

정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5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총선 이후 담뱃값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대한금연학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담배업계 간담회를 소집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관계자에게 명확히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